

내러티브와 문학치료

내가 마치 책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

글_ 변학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독서라는 수용적 문학치료는 적극적 지각(active perception)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 수용적 지각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적극적 지각이란 제시된 것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과 사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 끝없는 세계의 일부분이라도 감지를 해보라. 느낌과 감성을 갖고 하나에 집중해보자. 가령 시각에 집중해보자.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려도 좋다. 지난번 호까지는 시로 시도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시적 상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산문 작품을 통해 어떻게 수용적 지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일 포스티노〉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된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일부라면 좋겠다.

(우석균 옮김, 민음사 2004, 27~28쪽)

인용한 부분은 네루다에게 오로지 그의 편지만을 배달해주는 별 능력 없어 보이는 청년 마리오가 어느 날 편지를 전달하고 난 후, 곧 헤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자 슬픈 마음이 들어 떠나지 않고 물끄러미 네루다를 보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전봇대 같이 서 있는’ 것이 ‘창처럼 꽃혀 있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얼마나 네루다를 좋아했으면 마리오가 가지도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네루다의 메타포를 다 외우고 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집중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연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텍스트에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인공 마리오의 삶의 이력과는 다른 나의 이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는 외적인 눈과 내적인 눈으로, 그리고 감각을 가지고 기억을 불러와 텍스트보다 더 많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필자는 잔칫집이 떠오른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기억이 떠오른다. 들어가서 음식 달라는 말도 못하는 수줍은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마리오처럼 그렇게 ‘체스의 탐처럼 고즈넉하게’ 서 있었던 적이 기억난다. 그때 나의 몸은 정말 평온하였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내 몸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오늘날 식사로 잡채를 먹을 때는 거의 온 몸으로 열광하며 먹는데 그 이유는 그 때의 기억 때문이다. 누가 먹다가 남겨둔 잡채를 집어 먹거나 쓸어갈 때마다 내

1958년에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 장학생,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철학석사(M.A.)와 문학박사(Dr.phil.)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독일 공인 문학치료사, 독일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ls-Institut)에서 임상수련(문학치료 슈퍼바이저), 독일문학치료학회 회원, 문학평론가이다. 2003년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설립했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문학치료) 《프로이트 프리즘》 《잘못보기》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인문학과 해석학(공저), 《영화로 문화읽기》(공저) 등이 있다. 《시와 인식》 《기억의 공간(공역)》 《보리스를 위한 파티》 《독일문학은 없다, 릴케-헌시·시작노트》(공역) 등을 번역했다.



마음 속의 결핍(deficit)은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그대로만 머물지 않고 전이라는 과정을 거쳐 상처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빼놓고 밥을 먹는다는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고 일을 수행한다는 할 때마다 그런 기억이 새로운 상처를 만든다. 후일의 상처가 전날의 상처와 일치하지 않아도 상처는 새로운 상처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설명한다. 이야기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 느낌의 반향,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것을 다시 세계로 향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을 메타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읽거나 아름다움을 부여받기 위해 읽는다면 그것은 지식을 위한 독서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도 수용적인 자세로 독서를 하면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일깨우게 되고 독서는 치유적 독서가 되며 동시에 자신의 과거 삶을 치유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

수용적인(receptive) 길이란 적극적으로 파악한 것들이 내게 의미를 던지는 과정이다. 책을 읽으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손가락으로, 온몸으로 감각이 다가온다. 그것을 느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주파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학자인 코올리지는 “불신을 의도적으로 잠시 중단하는 것 [the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 for a moment]”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 장면에 포획되는 것을 느낀다. 유비추리의 상황이 갑작스레 엄습하여 나의 기억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외적 지각, 적극적 지각이 내적인 공간을 만든다. 이 내적 공간을 릴케는 ‘세계 내 공간’이라 설명했다. 나는 내적인 세계에 살고 세계는 내 속에 있다.

이 순간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느끼고 알게 된다. 이런 경지는 책을 읽기 전, 고착된 감각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는 체험 불가능했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세계와 사람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친구처럼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그 기억의 세계는 불편하였지만 나에게 친숙하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먹고 싶었던 세계, 누군가 반겨주길 원하던 나의 욕망은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때는 못 먹었고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세계와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문학은 감동과 미학이라는 무기로 그런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같이 읽고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이것도 힘들다면 문학가나 문학치료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 텍스트가 알 수 없는 현재의 정서를 다룬다면, 내러티브는 주로 과거의 삶, 치유되지 않은 기억을 현재에 활성화하여 치유하는 것이다.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일, 죄의식에 차 있었던 일, 과거에 소원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던 일, 과거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 병리학적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할 때는 내가 마치 책의 주인공처럼 변신하여 보는 것이 좋다. 나라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 나라면 도저히 떠올리기조차 못할 기억은 독서하는 책의 일로 보면 좀 더 쉬워진다. 산을 보고 있는 동안 산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늘 일상에만 갇혀 있으면 일상을 보지 못한다. ❦